『한국민족문화』 67, 2018. 5, 199~233 http://dx.doi.org/10.15299/jk.2018.05.67.199

동해안의 왜구와 쓰시마 早田氏

정 영 현*

1. 머리말
2. 왜구의 동해안 침입
   1) 침입 양상과 분석
   2) 축산도와 울릉도의 왜구
   3) 가왜의 발생
3. 태조 5년의 降倭와 쓰시마 早田氏
4. 맺음말

〈국문초록〉

14세기 고려를 습격한 왜구는 1380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동해안 지역을 약탈하기 시작한다. 이는 고려의 조운이 육로화 혹은 폐지되고, 진포대첩 · 황산대첩 등의 패배로 인해 왜구들이 새로운 약탈루트를 찾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동해안의 왜구는 기본적으로 對馬를 출발하여 동해안을 따라 영해부 · 축산도를 교두보로 삼아 내륙으로 진출하였다. 그들은 산맥을 넘어 충청 · 강원 · 경기 등 내륙지역까지 약탈하였는데, 고려시기에 정비된 역로를 따라 이동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이 시기 왜구가 울릉도를 일시적인 근거지로 삼기도 하였다.

동해안 지역에 왜구가 창궐하는 무렵에 가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영해 지역의 화척 · 양수척으로, 왜구의 일원이 아니라 지역적 · 신분적으로 경계적인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생겨난 집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부산대학교 사학과 강사(octagram@hanmail.net)

조선 태조 5년(1396) 왜구들이 동해안을 공격하였다. 그들은 조선군에 의해 진압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조선에 항복하였다. 그 우두머리의 이름은 羅可溫이었다.

羅可溫의 정체는 바로 조선전기 쓰시마 도내의 실력자이자 교역자로 활동한 早田佐衛門太郎였다. 1396년 羅可溫의 왜구 활동을 1380년대 동해안의 왜구와 비교해보면, 동해안의 왜구는 早田佐衛門太郎가 주축이 된 집단으로 보인다. 早田는 그간 왜구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었으나 직접적인 해적 활동이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14세기 후반 동해안의 왜구가 바로 그의 소행이었던 것이다.

* 주요어: 동해안, 왜구, 영해부, 축산도, 早田氏

1. 머리말

여말 선초에 해당하는 14세기 중후반, 한반도는 일본으로부터 건너온 대규모의 왜구에 의해 큰 피해를 입고 있었다. 왜구는 14세기 중엽 일의 남북조 내란의 무대가 九州 지역으로 옮겨지는 것과 시기를 같이 하여 크게 창궐하였으며, 대규모로 한반도로 건너와 약탈과 살인, 납치와 방화를 자행하였다. 이 시기 한반도에 나타난 왜구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동남쪽으로 마주하고 있는 지역인 쓰시마를 비롯한 규슈 지역의 해상세력으로 추정된다.[1)]

왜구는 주로 고려의 조운로를 따라 대량의 미곡과 인신을 약탈하였다. 그들의 주요 약탈대상은 조운선에 실린 세곡이었다. 이에 따라 조운이 이

1) 이 점에 대해서는 『고려사』 정몽주 열전, 『실록』 등 다수의 사료에서 '對馬' 혹은 '三島'를 왜구의 근거지로 지목하고 있으며, 근대의 연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근래 '三島'의 정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쓰시마와 규슈 지역이 왜구에 근거지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영, 「〈고려 말 · 조선 초 왜구=삼도(쓰시마 · 이키 · 마쓰우라) 지역 해민〉설의 비판적 검토」, 『일본문화연구』 38, 동아시아일본학회, 2011; 이태훈, 「〈삼도왜구〉의 〈삼도〉에 대한 이영 說의 재검토」, 『한일관계사연구』 43, 한일관계사학회, 2012.

동하는 경로인 낙동강 하구~남해안~서해안~개경으로 이어지는 루트는 왜구가 주로 활동하던 영역이 되었다. 고려의 서남해안은 왜구에 의한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왜구를 피해 조창을 내륙으로 옮기고, 급기야 1376년(우왕2)에는 조운은 정지시키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로 인해 왜구의 활동이 근절되기는커녕, 내륙까지 들어와 약탈행위를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하지만 왜구가 남서해안만을 약탈한 것은 아니었다. 남해~서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이지만, 동해안 지역의 왜구 피해에 대한 기사도 발견된다.[2] 여말선초 왜구의 성격을 규정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남해~서해 지역을 그 표본으로 다루고 있으며, 동해안 왜구를 따로 구분하여 그 성격을 다루는 논문은 거의 없다. 지역사 연구의 일환으로 왜구를 다루고 그 피해와 대책을 연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3] 동해안 왜구를 여타 지역의 왜구와 구분하여 그 특징이나 정체성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동해안 지역의 해적 문제에 대한 연구는 고려 전기 동여진 해적이 중심이 되고 있다.[4] 또한 근래 환동해 지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환동해권의 수로와 문화교류 등에 대한 연구서가 나오기도 하였다.[5]

사료를 통해 살펴보면, 산발적으로 발견되던 동해안 일대의 왜구 피해가 갑자기 증가하는 것은 1380년대 이후의 일이다. 특히 1381~1385년의 피해는 극심하였다. 그 피해 지역 역시 연해 · 도서 지역 뿐만이 아니라 내륙까지 광범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현재의 영덕군에 해당하는 영해부와 축산도는 이 시기 동해안에

---

2) 이 글에서는 '동해안의 왜구'에 대해 남해안과 인근하지 않은 울주 이북의 왜구로 상정하고자한다.

3) 정병화, 「高麗末 慶北 東海岸 地方 倭寇 侵入時 民의 動向」,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손승철, 「고려시대 강원지역에 대한 왜구의 침탈과 대응」, 『강원사학』 24, 강원대학교사학회, 2011 등.

4) 이창섭, 「11세기 초 동여진 해적에 대한 고려의 대응」, 『한국사학보』 30, 고려사학회, 2008; 정요근, 「11세기 동여진 해적의 실체와 그 침략 추이」, 『사학연구』 108, 한국사학회, 2012.

5) 동북아역사재단 편, 『고대환동해교류사』, 동북아역사재단, 2010; 주강현, 『환동해문명사 – 일어버린 문명의 회랑』, 돌베게, 2015 등.

나타난 왜구가 상륙하여 약탈 활동을 벌이는 교두보가 된 지역으로 보인다. 또한 소수이나마 울릉도에서도 왜구 기사가 발견되는 점도 흥미롭다. 그리고 이전까지 보이지 않던 가왜 행위에 대한 기사가 이 시기 동해안 지역에 왜구가 나타나면서 처음 등장하게 된다. 또 하나 흥미를 끄는 사실은 조선 태조 대에 동해안을 통해 들어온 왜구가 조선에 내투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동해안 지역에 대한 왜구의 약탈은 남·서 해안과 흡사하면서도 많은 부분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 논문에서는 먼저 고려후기에 동해안에 나타난 왜구의 전반적인 약탈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시기 왜구들이 왜 동해안으로 이르게 되었는지, 시기별 추이는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축산도와 울릉도에 나타난 왜구 기록을 통해 동해안으로 진출한 왜구들이 어떤 루트를 활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동해안 지역의 왜구와 가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자 한다.

또한 태조대이 발생한 항왜 사건의 추이를 살펴보고 그 주체의 정체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쓰시마 내의 유력한 세력이었던 早田氏가 동해안 지역의 왜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음을 추측해보고자 한다.

2. 왜구의 동해안 침입

1) 침입 양상과 분석

현재 왜구연구자들 사이에서 왜구 창궐이 시작되는 되는 해는 1350년 경인년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는 사료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을 뿐더러,[6] 왜구 발생 통계를 통해서도 이를 파악할 수 있다.[7]

---

6) 『고려사』 권37 세가37 충정왕 2년 2월, "倭寇之侵, 始此"; 권114 열전27 김주, "庚寅以來, 倭奴肆虐"; 권120 열전33 윤소종, "國家, 自庚寅以來, 東禦倭寇, 丙申以後, 北禦韃靼." 등.

7) 김보한, 「중세 麗·日관계와 倭寇의 발생 원인」『왜구·위사 문제와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2005. 108쪽 표.

그런데 '이른바 경인년 이해의 왜구'의 피해는 대부분 남 ·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동해안은 이에 비해 왜구가 많은 지역은 아니었다. 『고려사』, 『고려사절요』, 『양촌집』 등의 사료를 통해 볼 수 있는 동해안 지역의 왜구를 표로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표 1〉 동해안 지역의 왜구

서기	왕	년	월	지역	비고
1352	공민왕	1	6	강릉도	
1372	공민왕	21	4	진명창(덕원)	
			6	울진, 강릉, 영덕, 덕원, 안변, 함주, 북청	『여지도서』 울진
1374	공민왕	23	5	강릉, 삼척, 경주, 울주	
1377	우왕	3	4	울주, 경주, 언양	
1379	우왕	5	5	울주, 경주, 청도	
			6	울주, 청도, 경산, 언양, 강릉도	
			7	울릉도	울릉도
				울주, 기장, 언양	추수하여 체제
1380	우왕	6	여름	흥해	양촌집 흥해군신성문루기
1381	우왕	7	2	영해	
			3	강릉도, 청송, 울진, 삼척, 평해, 영해, 영덕	
			5	영해	
			6	영주, 김해, 영해, 울주, 양주, 언양, 울진	
			7	축산(영해)	
			10	임하(안동)	
1382	우왕	8	3	평해, 삼척, 울진, 삼척, 우계(강릉), 영월, 예안, 영주, 순흥, 예천, 안동	
			4	영해	가왜(화척)
			4	강릉도	
			4	단양	죽령을 넘음
			5	회양부, 영춘현	
			6	경산, 대구, 화원, 계림, 통구(강원)	

1383	우왕	9	6	평창, 원주, 춘천, 철원, 영주, 순흥	양촌집 사불산미륵암중창기
			6	길안, 안강, 기계, 영주, 신녕, 의흥, 의성, 선주, 단양, 제주, 평창	
			7	방림역(강릉), 의성, 예안, 순흥, 대구, 경산, 선주, 인동, 지례, 김산	
			8	의성, 안동, 예안	1,300여명
			9	강릉, 철원, 회양, 평강,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춘천, 평창	
			10	안변(통천), 양양, 고성, 양구	
			11	청풍(제천)	
1384	우왕	10	윤10	청하(포항)	
1385	우왕	11	4	교주도, 양주	
			5	축산(영해)	
			6	평해	
			7	평해	
			8	단주(함남 단천), 함주, 홍원, 북청, 합란북(함북), 천불산	
1386	우왕	12		영해	세종실록
1388	우왕	14	10	영해	양촌집 사재소감 박강전
1396	태조	5	8	영해, 부성포(울산)	
	태조	5	11	영해, 장기, 평해, 강원도, 울진, 울주	60여척

이상의 표에 나타난 동해안 지역의 왜구를 이해하기에 앞서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같은 시기에 남·서해안 지역의 왜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이 있었다는 점이다. 즉, 동해안 지역의 왜구가 이 시기 왜구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 다만 한 집단이 동해안 지역을 공략하는 동시에 서해안 지역을 공략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이에 필자는 위 표에서 동해안을 통해 상륙한 것으로 판단되는 왜구를 최대한 분리하고자 하였다. 또 한 가지는 같은 해에 동해안 지역에 나타났다고 해도, 동일 집단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남·서해안에서 나타난 왜구들에 비해서는 그 집단의 수가 현저히 적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하나의

집단이 여러 집단으로 분산하여 다수의 지역을 동시에 공격했을 가능성 역시 상정해야 할 것이다.

당시 동해안 지역에 나타난 왜구의 모습을 정리하면 3개의 시기로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①번째 시기를 1352~1380년까지로 두고자한다. 이 시기의 왜구는 몇 년에 한 번씩 간헐적으로 나타나 동해안의 해변 고을을 약탈하고 있다. ②시기에 비해 빈도는 낮으나 대담하게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1370년대 후반에 이르면 그 빈도가 잦아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②1381~1388년 사이의 시기는 본격적 침입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왜구들은 매년 동해안에 나타나고 있으며, 영해 지역을 거점으로 삼고 있다.[8] 이들은 큰 규모의 세력을 이끌고 영해부 축산도를 교두보로 삼아 내륙에 깊숙이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1396년의 왜구는 일시적인 재침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해에 왜구가 나타난 이후 동해안 지역의 왜구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1396년의 경우는 조선 건국 이후로, 降倭 사건이 눈에 띈다.

먼저 ①시기를 살펴보자. 동해안 왜구는 1352년 왜구가 강릉도에 침략한 것이 그 시초인데,[9] 이전까지 주로 남서해안의 조운을 노리던 왜구가 동해안으로 들어오게 된 자세한 사정은 알 수가 없다. 같은 시기 왜구들의 활동은 주로 남해안(합포 등)과 서해안(전라도에서 西江에 이르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물길을 잘못 접어든 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새로운 약탈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372년(공민왕21) 4월 덕원(원산)을 공격한 왜구는 6월 강릉, 영덕, 덕원, 안변, 함주, 북청 등 광범한 지역을 약탈하였다. 이때는 주로 동해안 연해지역의 주군을 광범위하게 약탈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눈에 띄

8) 『양촌집』 권11 기류 「영해부서문루기」에서 신유년부터 이 지역에 왜구의 피해가 맹렬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9) 『고려사』 권38 세가38 공민왕 1년(1352) 6월 병인.

는 것은 공민왕 21년(1372) 6월의 사료인데,[10] 여기서는 왜구가 안변과 함주까지 약탈하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안변 등에서 양곡 1만석을 약탈하고 있는데,[11] 북계지역의 요충인 안변도호부의 창고에서 대량의 약탈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성계를 화령부윤으로 삼아 이들을 방어하도록 하였고, 만호 趙仁璧이 70여급을 베는 전과를 올렸다.[12] 이를 전후하여 이와 같이 동북방 경계가 크게 약탈당한 사례는 찾기 힘들기 때문에, 비록 이 해에 나타난 동해안 왜구는 비교적 큰 규모이기는 하나 일회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1374년(공민왕23) 5월에도 강릉, 삼척, 경주, 울주 등지에 왜구가 침입하였다.[13] 1377년의 왜구의 경우 울주와 계림(경주)에 침입하였으나,[14] 같은 시기 黃山江이나 밀성 등지를 침입하고 있는 것을 보면[15] 엄밀히 보아 동해안을 따라 침구하였다기 보다는 경상도 일대에 왜구가 북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377년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왕 5년(1379)에는 5월부터 7월 사이에 동해안에 왜구가 출몰했다. 이 해의 왜구는 울릉도에서 체류하는 외에도 울주에 체류하면서 벼를 베어 군량으로 삼고 기장과 동래까지 침입하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16] 울릉도와 울주의 기사 모두 왜구가 일정기간 체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듬해인 1380년 소위 경신년 왜구[17] 때에는 왜구들이 한반도 내륙에 장기체류하면서 심지어 겨울을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시초적인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1380년의 경우 사서에는 이 지역에 왜구가 출몰한 기사를 찾을 수 없으나, 『양촌집』에서 흥해 지역의 약탈이 확인된다.[18]

---

10) 『고려사』 권43 세가43 공민왕 21년(1372) 6월 을유.
11) 『고려사』 권43 세가43 공민왕 21년(1372) 6월 신축.
12) 『고려사』 권43 세가43 공민왕 21년(1372) 6월 기해 및 임인.
13) 『고려사』 권44 세가44 공민왕 23년(1374) 6월 기축 및 계사.
14) 『고려사』 권133 열전46 우왕 3년(1377) 4월.
15) 『고려사절요』 우왕 3년(1377) 4월.
16) 『고려사』 권114 열전27 우인렬; 『고려사절요』 우왕 5년(1379) 7월.
17) 이영, 「고려 말 왜구와 남조-경신년(1380)의 왜구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31, 한일관계사학회, 2008.

왜구가 본격적으로 동해안에서 출몰한 것은 ②번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1381년(우왕7)~1388년(우왕14) 사이에 잇달아 동해안에 왜구가 나타나게 된다. 1381년 2월 영해부(영덕)에 왜구가 처음 등장하여, 3월~10월 사이에 강릉, 청송, 울진, 삼척, 영덕 등지를 침범하였다. 영주나 영주(현재의 안동시 임하면) 등의 내륙지 역시 침범하였다. 1382년(우왕8)에도 평해(울진)·삼척·우계(강릉) 등 동해안으로 들어온 왜구가 영월, 단양, 예안(안동), 영주, 보주(예천) 등의 내륙지역으로 진출하였다.

1383년(우왕9) 6월 경북과 강원도 지역에 나타난 왜구 역시 낙동강이 아닌 동해안을 통해 이 지역에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해 8월 1,300명의 대규모로 나타난 왜구는[19] 처음 보고된 지역이 강원도와 경북 지역인 것으로 보아 동해안을 통해 내륙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며,[20] 이해 10월까지 지속적으로 강릉 등지에 왜구 보고가 있다. 1384년 청하현에서 왜구의 보고가 있었다.[21]

1385년(우왕11)에도 7월에 평해(울진)에 나타난 왜구가 8월까지 함경도 각지에서 약탈을 행하였다. 이 왜구의 경우, 내륙으로는 교주도까지 진출하고 있으며,[22] 역시 축산도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머무르고 있다.[23] 더욱 눈에 띄는 것은 현재의 함경도 지역까지 약탈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다.[24] 함경도 지역에 대한 침입은 『고려사』 沈德符의 열전에서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25]

1386년의 영해의 왜구는 『세종실록』 崔閏德의 졸기에 '丙子年'으로 표

18) 『양촌집』 권11 기류 「興海郡新城門樓記」.
19) 『고려사』 권135 열전48 우왕 9년(1383) 8월.
20) 『양촌집』 권11 기류 「寧海府西門樓記」.
21) 『고려사』 권135 열전48 우왕 10년(1304) 윤10월.
22) 『고려사』 권135 열전48 우왕 11년(1385) 4월.
23) 『고려사』 권135 열전48 우왕 11년(1385) 5월, "倭船 20여 척이 丑山島에 와서 정박하니 金斯革을 楊廣道上元帥로 삼고 李和와 安柱를 교주·삭방·강릉도의 助戰元帥로 삼았다."
24) 『고려사』 권135 열전48 우왕 11년(1385) 9월, "倭가 咸州·洪川·北青·哈蘭北 등지를 침입하여 노략질하니 우리 태조[李成桂]가 가서 치기를 자청하여 咸州 兎兒洞에서 싸워 크게 이를 패하게 하니…".
25) 『고려사』 권116 열전29 심덕부.

기되어 있으므로[26] 이 해에 왜구가 침입한 것을 알 수 있다. 1388년의 영해 지역에 나타난 왜구는 『고려사』 및 『고려사절요』에는 그 기사가 없으나 권근의 『양촌집』을 통해서 그 존재를 알 수 있다.[27]

몇 년 동안 잠잠하던 동해안 지역의 왜구는 태조 5년(1396) 8~11월 사이에 울주에서 평해, 영해, 울진이 이르는 지역에 걸쳐 나타난다. 1390년대에 이르면 전체적으로 왜구 피해가 감소한 상황이며, 사실상 동해의 왜구 역시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었다. 이 시기 동해안의 왜구가 사라진 가장 큰 요인은 기본적으로 일본 내의 남북조 내란 상황이 종식된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려 · 조선 조정의 노력에 의해 동해안 지역에 왜구를 대비한 관방시설이 갖추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28] 이 해에 왜 갑자기 왜구가 동해안에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지만, 그 단서를 찾는 작업은 추후로 미루기로 한다. 어쨌든 사료를 통해 그 우두머리들이 조선에 항복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 동해안 지역에 왜구가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반면 남~서해안 및 서북면 일대는 조선왕조 개창 이후에도 왜구에 대한 보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를 따로 분류하여 ③번 시기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시기에 왜구의 정체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동해안의 왜구는 동해를 가로지르기보다는 쓰시마를 통해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연안항법을 이용하였을 것이다. 동해안을 따라 움직이는 물길은 조운이 통하는 남 · 서해안의 루트에 비하면 대대적으로 활용된 루트는 아니었다. 하지만 과거 고구려와 발해가 일본이나 신라와 교역을 위해 이용하였던 뱃길 중 하나였으며,[29] 고려전기에는 동여진의 해적이 약탈을 위해 이용하였던 길이었다. 11세기초 '도이적(刀伊賊)'의 사례에서는 동여진의 해적이 동해안을 따라 일본에 침투하여 對馬, 壹岐, 博多

26) 『세종실록』 27년(1445) 12월 5일 갑진.
27) 『양촌집』 권19 전류 「司宰少監 朴强傳」.
28) 손승철, 「고려시대 강원지역에 대한 왜구의 침탈과 대응」, 『강원사학』 24, 강원대학교 사학회, 2011.
29) 동북아역사재단 편, 『고대환동해교류사』 2부 발해와 일본, 동북아역사재단, 2010, 126~136쪽. 주강현, 『환동해 문명사』, 돌베게, 2015, 218~236쪽.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30]

물론 발해의 경우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기 위해 동경 용원부에서 출발, 동해를 가로질러 후쿠라(福良, 현재 이시카와현 도기)까지 가는 물길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왜구의 주체가 되는 세력들은 주로 규슈에 밀집해 있었으므로 굳이 바다를 가로지를 필요가 없었으므로,[31] 연안수로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동해안의 왜구가 활용한 물길이 연안항로인 점은, 이미 조선시대의 실학자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여기서 왜구는 동해 건너편의 陸奧나 伯耆 지역에서 건너온 것이 아니라, 인근한 平戶와 對馬, 五島 열도 등 지역에서 건너와 해안선을 따라 북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던 것이다.[32]

만약 그렇다면, 동해안에 나타난 왜구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세력이 침입한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쓰시마를 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한반도의 남·서해안이 아니라 동해안으로 뱃머리를 돌리게 되었던 것일까.

왜구에게 있어 동해안은 남·서해안에 비해 물길과 육로 등 지리적 조건, 조운시설 문제 등 여러 면에서 다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즉, 동해안 수로는 낙동강 연안에서 출발하는 조운루트와는 반대방향이며, 특히 강원도 이북 지역은 조운수송이 없는 동계 지역이었던 것이다. 왜구의 주요한 목적은 물자와 인신의 약탈이고, 조창을 공격하고 조운선을 나포하는 것이 주요한 방식이었다. 그러므로 조운이 통하지 않는 동해안은 상대적으로 약탈대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곳이었을 것이다. 그 때문에

---

30) 蓑島栄紀, 「史料からみた靺鞨·渤海·女真と日本列島」, 『北方世界の交流と変容—中世の北東アジアと日本列島』, 山川出版社, 2006.

31) 피로인의 쇄환 주체를 통해 보아도 왜구 주체세력은 규슈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정영현, 「여말선초 倭寇 被虜人의 쇄환과 그 성격」, 『지역과 역사』 39, 부경역사연구소, 2016.

32) 『청장관전서』 24권 編書雜稿 4 兵志 備倭論, "이들은 무쓰[陸奧]와 호키[伯耆]의 倭가 직접 東海를 건너온 것이 아니라 바로 히라도[平島]와 쓰시마[大馬]의 적이 영남 寧海의 丑山島로부터 침입한 것이었다."
『해동역사』 交聘志8 附 「倭와 통하는 海路」, "고려 말기에 東北 경계를 침범해 온 왜구들이 모두 敗沒하였는데, 이는 隱岐州나 陸奧州의 왜구들이 곧장 동해를 건너온 것이 아니라 바로 五島와 對馬島의 왜구들이 영남의 해로를 따라 나온 것이다."

1370년대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산발적 수준의 왜구만이 보고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왜구에게 동해안은 물길이 익숙하지 않은 루트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조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380년대에 동해안에 왜구가 대대적으로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남서해안의 조운의 변화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전체 왜구상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이 시기가 되면 남서해안의 조창이 내륙으로 이동하고[33] 심지어 조운이 중단되면서[34] 새로운 약탈 루트를 찾을 필요성이 생겼던 것이다. 더구나 왜구들은 1380년(우왕6) 대규모의 연합을 이루어 쳐들어왔다가[35] 진포대첩 및 황산대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일부 왜구 집단은 기존의 조운 약탈 루트를 포기하는 대신, 서북지역(나아가 중국 해안)이나 동해안으로 뱃머리를 돌리게 되었던 것이다. 동해안을 따라 점차 북상하던 왜구는 함경도 등 북방 지역까지 침범하게 된다.[36]

만약 이와 같다면, 남 · 서해안을 침범한 왜구와 동해안을 침범한 왜구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더구나 동해안 지역이 약탈되는 와중에도 남 · 서해안에 대한 왜구가 중단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왜구가 동해안을 약탈한 것이 아니라, '일부 왜구 집단'이 새로운 약탈 루트를 찾아 동해로 뱃머리를 돌렸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물길을 새로 개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특정 시기 동해안을 오간 왜구의 무리는 어느 정도 한정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 '일부 왜구 집단', 즉 1380년대 동해안 왜구를 주도한 세력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추적해보고자 한다.

---

33) 『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 7년(1358) 4월 정유.

34) 『고려사』 권133 열전46 우왕 2년(1376) 윤9월.

35) 『태조실록』 권1 총서, "처음에 阿其拔都가 그 섬에 있으면서 오지 않으려고 했으나, 여러 적들이 그의 용감하고 날랜 것에 감복하여 굳이 청하여 왔다. 여러 賊酋들이 매번 進見할 때마다 반드시 달려 나아가 무릎을 꿇었으며, 군중의 호령을 모두 그가 주관하였다."

36) 『고려사』 권135 열전48 우왕11년(1385) 9월, "倭가 함주 · 홍천 · 북청 · 哈蘭北 등처를 침입하여 노략질하니 우리 태조[李成桂]가 가서 치기를 자청하여 더불어 함주 兎兒洞에서 싸워 크게 이를 패하게 하였다."

2) 축산도와 울릉도의 왜구

(1) 왜구의 교두보, 축산도

동해안의 왜구는 주로 경상도와 강원도 연해지역을 약탈하였고, 심한 경우 경상도와 교주도(강원도)의 내륙지역을 약탈했다. 나아가 함경도까지 약탈범위를 넓히고 울릉도에서 체류하기도 하였다. 또한 동해안 지역의 왜구는 전초기지를 마련하여 장기체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두보 역할을 한 곳이 영해부의 축산도였다. 영해부는 삼국시기에 고구려의 于尸郡, 통일신라시기에는 有隣郡 등으로 불리었으며 일시적으로 禮州牧으로 승격되기도 하였다가 충선왕 2년(1310) 영해부가 되었다.[37]

앞서 사료 또는 표를 통해 확인하였지만, 1380년대에 동해안으로 들어온 왜구는 축산도를 그 출입구로, 영해부를 그 교두보로 삼고 약탈활동을 하였다. 특히 1383년(우왕9) 왜구는 경상 내륙은 물론이고 고개를 넘어 경기도 강원도나 충청도 등 내륙지역까지 약탈하였다. 이시기의 왜구에 대해서는 아니라 윤가관의 열전에서도 서술되어 있다.[38] 또한 권근의 『양촌집』에 수록된 「영해부서문루기」에 이 시기의 참상이 잘 나타나 있다.

> **어쩌다 왜변이 일어나면서부터 날로 쇠퇴하다가 신유년(1381)에 와서는 그 화가 더욱 맹렬하여 성읍(城邑)이 빈 터가 되고 여염들이 소실되어, 두어 해 동안에 버려져 왜적들의 소굴이 되고, 관리들이 다른 고을로 갔으니, 범과 멧돼지가 옛마을로 내려와 살고, 변방의 방비가 없으므로 왜적이 더욱 깊이 들어와 계해(1383)년 여름에는 원주·춘천을 지나 철원의 경계에까지 범하였고, 양주·광주(廣州)에 침입하였다가 공주에서는 원을 살해했었다.**
>
> 그 왜적들이 모두 여기 **축산도(丑山島)로부터 들어왔었는데,** 한 고을이 수비를 실수하자 세 도(道)가 화를 입어, 외부가 무너지매 내부가 피해 입음이 이렇게 참혹했었다.[39]

---

37) 『고려사』 권57 지11 지리2 경상도 예주.

38) 『고려사』 권113 열전26 尹可觀, "처음에 왜적이 모두 축산도(丑山島)를 거쳐서 들어와 노략질하자 윤가관이 조정에 아뢰어 船卒을 두도록 하였는데, 이때부터 왜구에 대한 근심이 점점 사라졌다."

이 사료를 통해 원주 · 춘천 · 철원뿐만이 아니라 양주와 廣州, 공주에 나타난 왜구들도 모두 영해를 통해 침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이 기록이 없었다면 이 시기의 왜구들이 각각 동해안과 서해안 양 방면으로 들어온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충청도 · 경기도 지역에서 활동한 일부 왜구들은 동해안으로부터 상륙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권근은 동해안 지역에 왜구가 들끓은 직후인 공양왕 1년(1389)에 탄핵을 받아 영해 · 흥해 · 김해 등의 유배지를 전전하였다. 그는 유배지역에서 왜구의 피해상황과 그것을 복구해가는 과정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있다. 『양촌집』에 수록된 이 기록들은 왜구피해 현장에서 당대의 지식인이 남긴 귀중한 자료로, 사서를 보충할 만한 귀중한 사료로 평가할 만하다.

1385년(우왕11) 5월에는 축산도에 왜선 28척이 정박했다는 보고가 있는데,[40] 전후 사정으로 보아 왜구가 다시금 이곳을 전초기지로 삼았다고 추측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 시기 왜구는 함경북도에 이르는 지역까지 진출한다.

권근의 『양촌집』 권21 「司宰少監朴强傳」에 따르면 무진년에 영해 지역에 왜구를 침범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1388년(우왕14)이다.[41] 조선이 건국된 이후 대표적인 투화왜인인 羅可溫(林溫)이 태조 5년(1396) 12월에 60척을 이끌고 처음 항복해온 곳 역시 축산도였다. 羅可溫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왜구들은 축산도를 교두보로 삼고 동해안으로 상륙하였고, 경상도와 강원도의 내륙까지 들어와 피해를 입혔다.[42] 이는 축산도가 해로를 통해 경북 · 강원 일대로 들어가는 데 있어 좋은 입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 조를 통해 보면 이곳은 경상 좌수영 소속으로 병선 12척에 수군 429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왜구를 방어하는 군사적인 요지로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조선 문종 2년(1452)에는

39) 『양촌집』 권11 기류 「寧海府西門樓記」.
40) 『고려사』 권135 열전48 우왕11년(1385) 5월.
41) 『양촌집』 권21 「司宰少監朴强傳」.
42) 『고려사』 권113 열전26 尹可觀.

琉球의 배가 이곳에 표착하기도 하였는데, 남쪽으로부터 동해안을 따라 해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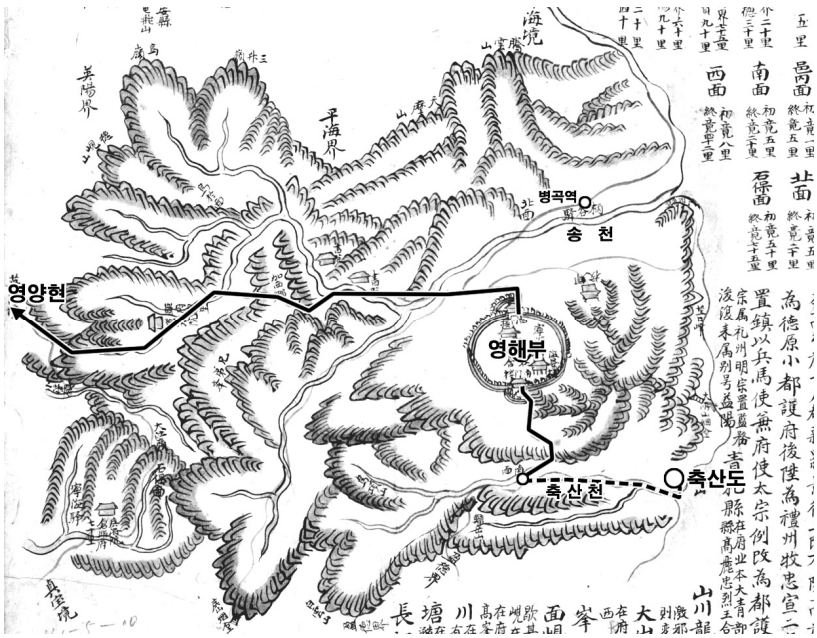
축산도 지역을 지형적으로 살펴보면, 선박을 댈 만한 해안선이 형성되어 있고 앞에 섬(현재의 죽도)을 앞에 두고 있어 천연 방파제 구실을 하였다. 일본의 對馬 · 平戶 · 松浦 등지에서 섬을 끼고 있는 만에 배를 정박하는 데 익숙한 왜구들에게 축산도 지역은 배를 댈 만한 좋은 입지조건으로 판단되었을 것이다.

또한 비교적 완만한 곡선 형태를 띠고 있는 주변 해안선에 축산도는 유독 돌출한 배꼽 같은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바닷길에 익숙한 왜구들이 동해안 물길을 따라 이동하는 데 좋은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동해를 따라 북상하다가 호미곶에서 연안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북상하는 왜구들에게는 집결지로서 좋은 표식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축산도의 포구는 하천(축산천)을 끼고 있는데, 18세기의 지도인 「해동지도」를 참고하면 축산도에서 이 하천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다가 육로로 북상하면 영해부의 읍치(현재의 영해면 성내리)에 쉽게 도달할 수 있었다. 영해부는 도호부급에 해당하며, 그간 왜구가 자주 침범한 지역이 아니었으므로 계절만 잘 맞춘다면 적지 않은 미곡이 창름에 보관되어 있었을 것이다. 축산도는 영해부의 대표적인 포구로서 고려 측의 선박이 관 · 사를 불문하고 다수 집결해 있었을 것이므로, 영해부의 창름을 약탈하여 축산포의 배에 실어 수송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축산천 하류를 이용하는 항로는 조선시대 어느 시기에 접어들면서 이용하기가 불편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사료에 따르면 '水宗이 바뀌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으며,[44] 그에 따라 왜구들이 드나들지 않았다고 한다. 울릉도의 수종 사료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보면, 조선 전기까지는 해류를 타고 동해 해안을 따라 배가 이동할 수 있었는데, 숙종대 기사로부터 수십 년 전에 해류가 바

43) 『단종실록』 1년(1453) 5월 11일 정묘. "중산왕(中山王)이 이르기를, '지난해에 우리나라 사람 12명이 조선 해변의 축산포(丑山浦)에 이르렀는데, 조선에서 후대하여 옷과 양식을 넉넉히 주어 돌려보냈으니, 우리가 지금까지 깊이 감사한다."

44) 『숙종실록』 20년(1694) 11월 6일 경오.



〈그림 1〉 영해부 축산도와 왜구의 루트

꿔어 울릉도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된다.[45]

『고려사』 등에서 볼 수 있는 우왕 9년(1383) 사료를 보면, 축산도를 통해 들어온 왜구들은 내륙으로 진출하여 광범위한 약탈을 일삼았다. 『양촌집』에서 권근이 남긴 기록이 없었다면, 일부는 동해안으로 들어와 경상도와 강원도를, 일부는 서해안으로 들어와 충청도와 경기도 지역을 약탈했다고 단정했을지도 모를 정도로 넓은 범위였다. 왜구들이 축산도로 들어왔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넓은 지역을 이용하였을까.

기본적으로 영해부에서 이어진 역로망과 수로망을 이용하면 내륙 지역으로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축산천의 경우, 당시 왜구가 최소 1,000여명에 이르는 대집단이었으므로 배를

45) 시기적인 면으로 보아 이러한 해류의 변화가 소위 '경신대기근'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타고 이를 거슬러 내륙 깊숙한 곳까지 이동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및 현대의 지도를 토대로 보더라도, 병곡역 앞을 흐르는 송천이 상대적으로 더 큰 물길로 생각된다. 추측컨대 축산도에서 배로 이동할 수 있는 영해부까지 연결되는 육로와 연결되는 지역(현재의 도곡리 근처)까지였을 것이며, 타고 온 배는 하천변에 두기 보다는 축산포에 정박하였을 것이다. 송천을 거스른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비슷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 이후는 육로를 이용하였을 것이다. 영해부는 禮州牧으로서 주변 지역을 관할하는 계수관 역할을 한 시기가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주변 군현 및 인근 계수관으로의 교통 시설이 일정 수준 이상 갖추어져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의 세곡을 수송하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영해부 지역은 우왕 2년(1376) 윤9월에 조운은 폐지하기 전부터 육운을 통해 수송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경상도속찬지리지』에 기재된 바를 참고하면, 이 지역의 세곡은 육로를 통해 문경 草岾으로 옮겨지고, 조령을 넘어 충주 덕흥창에 모이고, 이어 한강을 타고 수로로 개경까지 이동하였을 것이다.[46] 또한 당시 약탈된 범위를 참고하면, 영해-예안-안동-예천-상주-단양으로 연결되는 죽령로를 활용하였음을 상정할 수 있다.

즉, 우왕 9년의 사례에서 보이는 왜구의 광범위한 내륙진출은 영해부에서 상륙하여 조령 혹은 죽령을 넘어 강원도나 경기도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육로망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축산도는 바로 그 입구가 되는 곳이었다. 이와 같이 축산도 지역은 수로와 육로의 결절점으로서, 동해안 일대와 내륙지역을 약탈하는 왜구들에게 교두보이자 거점으로서 작용하였을 것이다.

(2) 울릉도의 왜구

고려시대에 울릉도에 왜구가 출몰한 것은 우왕 5년(1379) 7월, "왜가 무릉도로 들어와 보름을 머물다 갔다(倭入武陵島, 留半月而去)"[47]는 기사가

46) 『경상도속찬지리지』 안동도 영해도호부 貢稅.
47) 『고려사』 권134 열전47 우왕 5년(1379) 7월.

유일하다. 조선 전기의 경우, 태종 16년(1416) 과거 울릉도인 方之用의 가왜 행위에 대한 기사[48]를 제외하면, 태종 17년(1417)에 "왜가 우산도와 무릉도를 도둑질하였다(倭寇 于山, 武陵)"는 기사[49]를 찾을 수가 있다.

울릉도에 왜구가 출몰했다면, 어떠한 루트 통해 그들이 울릉도에 도달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왜구는 규슈 서북부-잇키-쓰시마를 거쳐서 조선으로 향했으므로, 울릉도에 가까운 일본 본토(예를 들어 현재의 시마네현 오키)에서 동해를 가로질러 울릉도에 도달했을 가능성은 낮다.

조선 숙종 36년(1710)에 울릉도에 왜선이 출몰했을 때, "예부터 동해에는 水宗이 있어 선박이 통행하지 않다가 (중략) 수십 년 이래 水宗이 바뀌어 왜선이 울릉도에 나타났다"고 하였다.[50] 그러므로 그 이전에는 일본에서 울릉도로 가는 물길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구의 바로 울릉도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쓰시마에서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울릉도를 향하였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전근대에 한반도 동해안에서 울릉도에 이르는 수로는 강원도(동계/강릉도)의 삼척 내지는 울진을 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적으로 보아 울릉도는 그 영현에서 시찰하게 되므로, 울릉도가 어느 현에 속하였는지를 보면 그 시기 울릉도로 향하는 가장 일반적인 포구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려시대의 경우, 울릉도는 울진현령의 관할 하에 있었다.[51] 그러므로 고려에서 울릉도로 가는 가장 일반적인 루트는 울진을 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구라면 어떠한 물길을 택했을까. 위 표에서 왜구가 울릉도에 출몰했던 우왕 5년(1379) 5월의 기사를 보면, 왜구들이 울주에서 강릉도 지역에 이르는 동해안의 넓은 지역을 약탈하고 있다. 그러므로 왜구들은 그 해안가 어느 지역에서든 울릉도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했을 것이다.

---

48) 『태종실록』 16년(1416) 9월 2일 경인. 고려후기 내지는 조선초기일 것이다.
49) 『태종실록』 17년(1417) 8월 6일 기축.
50) 『숙종실록 20년(1694) 8월 14일 기유.』
51) 『고려사』 권58 지12 지리3 동계 울진현.

물론 왜구들이 고려에서 이용하는 수로인 울진~울릉도 루트를 이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동해 연안항로를 따라 올라가다가 울진까지 올라가 울릉도로 간다면 거리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본다면, 영해부-축산도 역시 그 출발지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영해부의 축산도는 이 시기를 조금 지난 1380년대에 동해안 왜구의 출입구이자 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해부는 울릉도와도 관련이 깊은 지역이다. 이보다 앞선 현종 13년, 우산도에 여진이 침입하여 피난한 울릉도민을 영해부의 전신인 禮州에 분속한 바 있다.[52] 또한 조선 중종대의 기록에 의하면, '울릉도와 영해는 서로 바라보이는데, 밤에 불빛이 보이니 울릉도에 왜구가 있는지 의심된다'는 내용의[53] 기록이 있다. 『영덕군지』에 수록된 이 지역의 전설 중에는 울릉도의 성하신당 전설과 같은 내용의 전설이 전하고 있다.[54] 또한 이 전설의 초두에 그 시대적 배경을 '영해부에 울릉도가 속했을 때'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일시적이라도 영해부에 속한 적이 있다면 수로도 있었을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시기 영해부에 왜구가 드나들었다는 사료 상의 보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만을 언급해두고자 한다.

3) 가왜의 발생

끝으로 동해안 왜구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假倭의 발생이다. 가왜에 대한 사료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지지만, 그 출발점은 고려 후기 동해안 지역의 2건의 사료이다.

禾尺이 무리를 이루어 거짓으로 왜구가 되어서 寧海郡에 침입하여 관청과 민호를 불사르니 판밀직 林成味와 동지밀직 安沼, 밀직부사 皇甫琳 前

52) 『고려사』 권4 세가4 현종13년(1022) 7월 8일 병자.
53) 『중종실록』 6년(1511) 5월 21일 경오.
54) 영덕군청, 『영덕군지』 下 전설(57) 「울릉도 동신」, 2002~.

밀직부사 姜筮 등을 보내어 이를 추격하여 사로잡게 하니 임성미 등이 사로잡은 男女 50여 명과 말 200여 필을 바쳤다. 禾尺은 양수척(楊水尺)이었다.[55]

교주 · 강릉도의 禾尺, 才人들이 거짓으로 왜적이 되어서 평창 · 원주 · 영주 · 순흥 · 횡천 등지를 노략질하니, 원수 金立堅과 체찰사 崔公哲이 50여 명을 잡아 목베고 妻子를 州縣에 나누어 배속시켰다.[56]

가왜가 동해안 지역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이 지역이 변경(혹은 경계 지역)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왜구와의 접촉이라는 것이다.

이곳은 원래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으나, 그 방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왜구의 소굴이 되었다. 이 시기에 왜구가 이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민들은 불가피하게 왜구와 접촉하게 된다. 이러한 접촉은 변경의 민들이 왜구를 가장하고 약탈을 벌이는, 소위 가왜가 발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가왜의 주요 구성원은 화척 내지는 양수척으로 불리는 변경의 유랑민이었다.

영해부 · 축산도는 경상도에 속하지만 동계에 인접한 지역이며, 읍격이 작은 고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배지로 활용된 동해의 외딴 지역이었다.[57]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극동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또한 물길을 통해 동여진의 피해를 입기도 한 지역이었다. 중앙과 대별되는 경계지역으로서의 특질이 있었다. 『고려사』 악지에서 이 지역에 특유의 고무(鼓舞)가 전한다거나,[58] 禹倬 열전에서 팔령(八鈴)이라는 신을 모시는 음사가

55) 『고려사』 권134 열전47 우왕 8년(1382) 4월. "所獲男女"에 대해서는 '가왜가 납치한 남녀'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임성미 등이 사로잡은 화척 남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56) 『고려사』 권135 열전48 우왕 9년(1383) 6월.
57) 『고려사』 열전에 따르면 鄭頠, 權近, 鄭承可 등이 이곳에 유배되었다. 또한 李混, 金之謙, 李承老 등의 인물은 좌천되어 영해부사(예주목사)가 되었다.
58) 『고려사』 권71 지25 樂2 속악 舞鼓.

행해졌다고 전하는 것이 그 사례일 것이다.[59] 특히나 왜구가 들끓던 시기가 되면 고을의 읍치는 파괴되고 토지를 기반으로 살아가던 민들조차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고려의 영역에 살고 있지만 고려의 시스템 밖에 머물던 무리인 화척 혹은 양수척 역시 이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이들은 그 이전부터 고려 사회의 테두리 밖에서 활동하는 무리로, 상대적으로 중앙 정부의 지배력이 약한 동·북계 지역에서 주로 살고 있었다. 이들은 13세기 거란의 침입 당시에도 거란의 향도 역할을 한 바 있는데,[60] 이는 화척 등이 스스로 고려의 백성이라는 인식이 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화척·양수척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농사를 짓게 하거나 군역을 부담케 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는데,[61] 모두 이들을 정착시켜 고려의 시스템 내부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고려말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제대로 전개되지 못했고, 화척·양수척의 무리는 여전히 고려의 시스템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였다. 급기야 이 시기에 이르러 왜구를 가장해 약탈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1382년(우왕8) 4월 영해군에서, 1383년(우왕9) 6월에는 평창(平昌)·원주(原州)·영주(榮州)·순흥(順興)·횡천(橫川) 등지에서 왜인을 가장하여 약탈행위를 하였다. 주된 약탈 대상은 주로 말(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던 태종 16년 기사에서는 과거의 울릉도 가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62] 이 역시 시스템 내부로 편입되지 않은, 경계적인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보고된 가왜의 존재는, 田中健夫 등 주로 일본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63]에서 왜구 구성원의 상당수가 고려인이었다고 주장하는

59) 『고려사』 권109 열전22 제진 우탁.
60) 『고려사』 권22 세가22 고종 4년(1217) 3월.
61) 『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 5년(1356) 9월; 권84 지38 형법 호혼 우왕 14년(1388)조; 권118 열전31 조준 등.
62) 『태종실록』 16년(1416) 9월 2일 경인. 고려후기 내지는 조선초기일 것이다.
63) 田中健夫, 『中世海外交涉史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59 등.

증거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화척(양수척)은 고려 정부의 통제 밖에서 유랑생활을 하였으며, 고려시대를 통틀어 사회적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버들고리를 만들거나 예능행위를 하는 등으로 생계를 꾸리기가 힘들면, 약탈자로 돌변한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처해 있었다. 약탈은 분명 사회적으로 악행에 속하지만, 시스템 밖에 있는 입장에서 생활이 궁지에 몰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이 1380년대에 접어들면서 왜구를 가장하면서 약탈행위를 하게 된 것은, 이 시기에 그들의 생활영역인 동해안 지역에 왜구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즉, 화척의 약탈활동은 왜구와 별개로 일어나고 있었으며, 마침 소란을 일으키고 있던 왜구로 가장함으로써 스스로의 신원을 숨기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들이 왜구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왜구의 지령을 받고 약탈을 원조했다는 볼 수는 없다.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포로로 잡힌 가왜가 국문을 당했을 때 자의적인 범행이었음을 부인하기 위해서라도 왜구와의 관련성을 증언했을 것이다.

물론 화척 · 양수척의 무리가 거란의 침입 때처럼 왜구의 향도역을 하거나 약탈물의 거래대상이었을 가능성은 있다. 압수된 품목으로 보아 가왜의 주요 약탈물은 말인데, 아마도 관청이나 군진에 소속된 목장에서 훔쳤을 것이다. 이 지역의 화척이 약탈한 다수의 말을 관청의 눈을 피해 직접 목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처분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처분할 주요 거래대상으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비슷한 시기 동해안 지역에서 활동 중이던 왜구이다.

왜구가 한반도에 침구한 목적에 대해서는 남북조 내란의 무대가 九州 지역으로 옮겨진 상황에서 그 한 축이 되는 南朝(懷良親王 · 菊池 등) 세력이 병량미 획득을 위해 수하 세력을 파견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64] 이들은 만약 단순히 병량을 노획하기보다, 더 포괄적인 범위의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 군수품 중 하나가 말이었

64) 李領,『倭寇と日麗関係史』, 東京大学出版会, 1999.

을 것이며, 실제 다른 사례에서도 馬匹을 노획하는 사례가 보이고 있다.[65] 화척 등이 훔친 말의 주요 거래 상대는 왜구가 아니었을까. 나아가 왜구들이 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이들과 거래하기 위해 일부러 말을 약탈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는 간접적 관련성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가왜가 왜구의 일원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들은 왜구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거래 대상으로 접촉을 시도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왜구'로 언급되는 집단의 일부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발생하여 활동한 존재였다. 또한 사료에서도 이들을 왜구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로 구별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고려 국가 시스템의 가장 외곽에서, 즉 지역적 경계성 · 신분적 경계성을 동시에 가지는 영역(요컨대 경계 지역의 화척)에서 왜구라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 생겨난 새로운 존재였다.

가왜 행위로 인해 체포된 화척의 무리는 주모자로 처형되었으며, 식솔들은 노비로 전속되고 있다. 또한 도평의사사에서는 화척을 각도에 분속시키고 평민과 마찬가지로 차역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66] 이는 중앙이 경계를 다루고 복속시키는 일반적인 모습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3. 태조 5년의 降倭와 쓰시마 早田氏

태조 5년(1396)년 동해안 일대를 약탈하던 왜구가 조선에 투항한, 즉 降倭 관련 기사는 사실상 14세기 말 동해안 왜구의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었다.

이 당시 무리를 이끌고 조선에 항복한 인물은 羅可溫 혹은 相田御中이라고 불리는 인물이며, 이후 조선으로부터 林溫이라는 이름을 하사받기도 하였다.[67] 그는 태조 5년(1396) 12월 영해에서 항복하였다가 우여곡절을

65) 예를 들어 『고려사』 권134 열전47 우왕 8년(1382) 4월.
66) 『고려사』 권134 열전47 우왕 8년(1382) 4월.
67) 『태조실록』 7년(1398) 2월 17일 갑오.

거쳐 태조를 알현하고 수직왜인이 되었으며,[68] 태종 5년(1405) 6월까지 조선에서 생활하였다가 쓰시마로 돌아간 것으로 되어 있다.[69]

羅可溫 혹은 相田御中이라는 인물의 정체에 대해서는 田村洋幸의 연구를 통해 對馬의 유력자인 早田左衛門太郎(소다 사에몬타로, 조선 측의 사료에는 左衛門大郎으로 등장)라는 인물임이 밝혀진 바 있다.[70] 이후 佐伯弘次와[71] 한문종[72] 등이 조선전기 왜구 출신의 교역자로서 중요하게 다룬 바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는 早田左衛門太郎가 도주인 宗氏를 넘볼 정도로 쓰시마 내에서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왜구의 우두머리라는 점 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왜구 행위를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다.[73]

조선의 기록에서 그를 가리키는 '羅可溫'이라는 이름은 早田 씨의 일족 중 하나의 명칭인 '中尾[나카오]'을 음차한 것이다.[74] 그의 후손 중에도 '中尾五郎', '中尾彈正' 등의 명칭을 쓰는 자가 있다.[75] '相田御中'의 '相田' 역시 그의 성 소다를 편의상 한자로 표기하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외에 所溫田[76] 혹은 孫多[77] 등의 이름을 가진 倭人이 조선의 사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모두 소다 가문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御中'은 간혹 相田과 별개의 인물인 것처럼 언급되기도 하지만, '相田御中'을 하나의 인물명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羅可溫이 이끄는 부하들이

---

68) 『태조실록』 6년(1397) 4월 27일 기유.
69) 『태종실록』 5년(1405) 6월 6일 경오.
70) 田村洋幸, 「対朝鮮貿易における早田一族の特質」,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1967, 224쪽,
71) 佐伯弘次, 「14~15세기 동아시아의 해역세계와 일한관계」, 『제2기 한일역사공동보고서』 3,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10.
72) 한문종, 「조선전기 對馬 早田氏의 對朝鮮通交」, 『한일관계사연구』12, 한일관계사학회, 2000.
73) 예를 들어 한문종의 위 논문 72쪽에서는 1414년 이전의 왜구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74) 佐伯弘次, 위 논문, 2010, 39쪽.
75) 田村洋幸, 「対朝鮮貿易における早田一族の特質」,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1967.
76) 『세종실록』 7년(1425) 10월 9일 갑술. 田村洋幸, 「対朝鮮貿易における早田一族の特質」,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1967에서 참조하였다.
77) 『세종실록』 10년(1428) 9월 3일 임자.

별명 혹은 존칭으로 그를 '소다 오나카[相田御中]'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羅可溫은 쓰시마로 돌아간 이후에도 사료에 '沙斤多羅'.[78] '早田',[79] '左衛門大郎'[80], '沙文多羅',[81] '三未多羅'[82] '羅君'[83] 등의 이름으로 조선의 사료에 등장한다. 『실록』 기사에서는 그를 '豆地浦萬戶'라는 직책으로 언급하고 있다.[84]

이때 왜구 羅可溫이 항복하게 된 것은 본래의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즉, 羅可溫은 조선에 항복하기 위해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었다.

〈표 2〉 羅可溫 집단의 왜구 활동과 투항

태조 4년(1395)	1월 3일	표시라 등 4인이 항복.
태조 5년(1396)	8월 23일	왜구가 寧海城을 함락하였다.
	11월 2일	경상도도절제사 崔雲海 등이 長鬐에서 왜구 셋을 베었다.
	11월 5일	왜구가 平海城을 포위하였다.
	11월 13일	崔雲海가 왜구를 寧海에서 쳐 죽이니, 왜구가 도로 배를 타고 강원도로 향하였다.
	11월 17일	왜구가 蔚珍縣에 침입하다. 知蔚州使 李殷이 왜구 6급을 베니 비단을 내려 주다.
	12월 9일	林溫 등 60척이 영해 축산도에서 항복.
	12월 21일	항복한 왜괴 仄六이 장검과 환도를 바치고 숙배.
태조 6년(1397)	1월 3일	울주포에서 相田御中 등이 지울주사 李殷을 납치.
	1월 28일	납치와 관련하여 최운해, 이귀철, 김빈길, 김영렬 처벌.
	2월 9일	羅可溫이 이은 등을 돌려보냄.
	2월 10일	羅可溫의 아들 都時老와 昆時羅 · 望沙門이 관직을 제수 받음.

78) 『태종실록』 14년(1414) 5월 29일 신축.
79) 『태종실록』 14년(1414) 윤9월 22일 임술.
80) 『태종실록』 15년(1415) 6월 30일 을미.
81) 『태종실록』 18년(1418) 5월 21일 경오
82) 『세종실록』 2년(1420) 5월 11일 무인. 세종 2년(1420)의 기록인 송희경의 『일본행록』 2월 20일 및 28일 기사에는 '早田萬戶 三美多羅'라고 기록되어 있다..
83) 『세종실록』 27년(1445) 2월 23일 정묘, 李藝의 졸기.
84) '豆地浦'는 현재 쓰시마 중서부의 오사키 근처 지초리자키[土寄崎]로 보인다. 기해동정 당시 상륙지점이기도 하였다. 『세종실록』 1년(1419) 6월 20일 계사.

	2월 27일	쓰시마에서 이은을 귀환시킨 박인귀에 포상.
	3월 25일	박인귀를 통해 왜선 10척이 항복을 요청.
	4월 1일	羅可溫은 24척을 이끌고 다시 투항.
	4월 6일	왜괴 3인이 양식을 요구. 80명을 이끌고 밀양부에 이르렀으나 잠복을 눈치 채고 도망감.
	4월 24일	羅可溫 서울에 도착.
	4월 26일	羅可溫, 都時羅 등이 근정전에 조회.
	4월 27일	관직을 제수 받음.
	5월 6일	박인귀를 통해 쓰시마에 통서. 상만호/부만호/삼만호 중 '상만호' 처벌을 요구.
	7월 19일	아들 도시로가 사망. 조선에서 치제.
태조 7년(1398)	1월 26일	이은의 송환에서 활약한 울주의 아전 李陶·朴焉의 향역을 면제.
	2월 17일	仄六을 藤六으로, **羅可溫을 林溫으로**, **望沙門을 池門으로**, **昆時羅를 藤昆으로**, 沙門吾羅를 吳文으로, 三寶羅平을 張寶로, 吾音甫를 信吾로, 望時羅를 張望으로, 賢准을 藤賢으로, 阿時羅를 表時로 개명.
태종 5년(1405)	6월 6일	林溫이 表時羅와 함께 일본에 귀국.

羅可溫이 조선에 투항하는 태조 5년 12월 이전의 몇 달간의 왜구 사정을 보면, 8~11월 사이 평해, 영해, 울진, 울주 등지에 왜구가 침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왜구들은 내륙까지는 진출하지 않았지만 동해안의 여러 군현을 약탈을 벌이고 있었다. 이 시기 다른 지역에 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 왜구는 이후 羅可溫이 이끌고 항복한 60척의 세력과 동일한 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항복 전후의 사정을 차례대로 구성해보자. 羅可溫이 이끄는 왜구 세력은 태조 5년 8월 무렵 축산도로 들어와 영해부를 함락하였다.[85] 그들은 영해부(그리고 축산도)를 전초기지로 삼고 동해안 일대에서 약탈을 벌이고 있었다.[86] 그러기를 몇 달, 11월 13일 崔雲海가 이끄는 조선군과 격돌하여 본거지인 영해부를 공격받게 되자 강원도 방면으로 이동하였다.[87]

85) 『태조실록』 5년(1396) 8월 23일 무신.
86) 『태조실록』 5년(1396) 11월 2일 병진; 『태조실록』 5년 11월 5일 기미.
87) 『태조실록』 5년(1396) 11월 13일 정묘.

이후 울진현을 약탈하다고 조선군과 조우하기도 하였다.[88] 이들은 영해로 돌아와 영해부 서쪽에서 조선군과의 교전을 하여 승리를 거두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선에 항복을 청해 왔다.[89]

당시 우두머리는 5명이고, 이끌고 있던 병력은 60척에 달했는데, 중간에 탈락된 이가 있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인원수는 최소 수백 명에 달할 것이다. 즉, 이들은 아직 세력이 왕성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조선에 투항을 청해 왔던 것이다.

항복을 요구하면서 토지와 함께 식량을 요구한 것을 보면, 전투에서는 승리하였으나 식량 보급에 문제를 느껴 항복을 택했을 확률이 높다. 항복하면서 사로잡은 인구를 돌려보낸 것을 보면, 왜구 일당에 포로까지 대동하고 있었으므로, 식량이 빠르게 소모되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완전한 투항을 꾀한 것인지, 일시적인 기만책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와 같은 의문은 조선측 관원들도 가지고 있었다.

羅可溫은 아들 都時老와 부하 昆時羅 등을 볼모로 바치러 갔으나, 계림부윤 柳亮이 그들을 만나주지 않자 의심을 품고 지울주사 李殷을 납치하여 쓰시마로 돌아갔던 것이다.[90] 이후 통사 박인귀가 쓰시마로 건너가 羅可溫을 설득하여 이은은 풀려나게 되었다.[91] 또한 박인귀를 따라 그 무리 중의 일부가 10척을 이끌고 조선에 투항하였으며,[92] 羅可溫 스스로도 4월 1일에 24척을 이끌고 재차 투항하였다.[93]

이때 조선측에서는 羅可溫 외 10인은 서울로 올려 보낸 후, 잔당을 기습하고자 하였으나, 도주하였다.[94] 이후 5월 6일자 기사를 보면, 조선에서

88) 『태조실록』 5년(1396) 11월 13일 신미.
89) 『태조실록』 5년(1396) 12월 9일 계사.
90) 『양촌집』 권10 詩 「題李使君詩卷 得相字」에서도 이 날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은은 권근의 문생이므로 서로 친분이 있었으므로 직접 납치 당시의 상황을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세종실록』 27년(1445) 2월 23일 정묘, 李藝의 졸기에는 조정에서 의논이 오가는 중에 동래의 승려가 '관군이 羅可溫 일행을 공격할 것'이라는 虛報를 전하여 李殷 등을 납치하였으며, 李藝는 자진해서 이에 합류하여 쓰시마 和田浦로 건너갔다고 한다.
91) 『태조실록』 6년(1397) 1월 3일 병진; 2월 27일 경술.
92) 『태조실록』 6년(1397) 3월 25일 무인.
93) 『태조실록』 6년(1397) 4월 1일 계미.
94) 『태조실록』 6년(1397) 4월 6일 무자.

쓰시마에 글을 보내어 투항했다가 병선을 약탈해간 '上萬戶'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95] '上萬戶'는 '上將軍', 즉 지휘관급 인물이라는 의미였을 것인데, 신원은 확인할 수 없으나 아마도 밀양에서 도망친 무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羅可溫은 林溫이라는 이름을 받고[96] 수직왜인이 된다.[97] 그는 태조 5년(1405) 약 9년간의 조선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98] '早田佐衛門大郎'이라는 이름의 교역자로 활동하였으며,[99] 1418년 宗貞茂 사후에는 對馬 최대의 실력자가 된다.[100]

早田氏는 쓰시마 내의 실력자로서 도내에서 島主 宗氏에 맞먹는 세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쓰시마 중부의 尾崎 · 土寄 · 船越를 근거로 삼았다고 한다.[101] 그 중 左衛門太郎는 지초리(土寄) 계통의 早田氏였다.[102] 그는 歸島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역을 요청하고,[103] 세종 1년의 쓰시마 정벌(기해동정) 당시 스스로의 행적을 변호하기도 하였다.[104] 또한 그의 아들인 六郎次郎 역시 사에몬타로의 사후 그를 계승하였으며, 조선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다.[105] 羅可溫이 소다와 동일인물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조선에 투화한 아들 都時老[106]와 소다 사에몬타로의 계승자인 六郎次郎은 형제관계였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107] 또한 조선에 유학을 온 吾都音甫侍라는 소년 또한 그의 아들로 보인다.[108]

---

95) 『태조실록』 6년(1397) 5월 6일 정사.
96) 『태조실록』 7년(1398) 2월 17일 갑오.
97) 『태조실록』 6년(1397) 4월 27일 기유.
98) 『태종실록』 5년(1405) 6월 6일 경오.
99) 『태종실록』 15년(1415) 6월 30일 을미.
100) 樋口淳, 「老松堂のみた日本」, 『일본학연구』11,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02, 61쪽.
101) 上田正昭 外 監修, 『日本人名大辭典』, 講談社, 2001.
102) 佐伯弘次 編, 『中世の対馬』, 勉誠出版, 2014, p.47.
103) 『세종실록』 5년(1423) 6월 15일 갑자; 同 권26 6년(1424) 10월 6일 정미 등.
104) 『세종실록』 1년(1419) 10월 17일 무자. 당시 조선군의 상륙지가 早田左衛門太郎의 본거지인 豆地浦(土寄崎)였는데, 맞서 저항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105) 『세종실록』 13년(1431) 11월 9일 경오 등.
106) 『태조실록』 6년(1397) 2월 10일 계사.
107) 佐伯弘次, 「중세 尾崎 지역과 早田氏」 『조선전기의 한일관계와 博多 · 對馬』, 경인문화사, 2010, 220쪽 早田氏系圖 참조.

태조 5년 羅可溫=早田左衛門太郎가 이끄는 왜구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내륙까지 들어와 활동하지는 않지만, ①울주~영해~강원도로 통하는 동해안 지역의 물길을 잘 알고 있고, ②영해(축산도) 지역을 근거지로 삼고 주변 지역을 약탈하고 있으며, ③최소 60척 이상의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1380년 이후 동해안에 번성했던 왜구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羅可溫이 태조 6년(1397)에 투화할 당시 일행으로 아들 都時老를 동반했음을 감안하면, 동해안 지역에 왜구가 번성하던 1380년대에는 대략 30대의 혈기왕성한 나이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1380년대에 들어온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왜구의 출발점은 쓰시마로 보인다. 쓰시마 출신의 羅可溫 역시 젊은 시절 그 무리에 참여하여 경험을 쌓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羅可溫이 속한 早田 가문의 쓰시마 내의 위상이나 早田 가문의 근거지가 왜구의 주요 근거지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시 동해안 왜구 중에서 羅可溫의 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상을 다시 정리하자면, 1380년대에 동해안 지역에 나타난 왜구의 주축은 쓰시마의 유력한 세력인 早田 가문이 통솔하는 해상집단(및 그 동맹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태조 5년 그 중심인물인 羅可溫, 즉 早田左衛門太郎가 조선에 항복하고, 이후 통교자로 전환하면서 동해안 지역의 왜구 활동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만약 1380년대 동해안 왜구의 주축이 쓰시마의 早田 가문이었다면, 이들이 대규모의 세력을 규합하여 동해안을 침범하게 된 정치적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 시기 쓰시마 내에서 宗氏와 早田氏가 협력관계였는지, 대립관계였는지를 향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나아가 早田氏가 동해안을 약탈한 것이 단순히 해적으로서 물자를 약탈하기 위해서였는지, 혹은 규슈 내의 남북조 내란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가 남아 있다. 그간 규슈의 少貳氏와 쓰시마의 宗氏 중심으로 왜구의 정치적인 면이 파악되어 왔으나,[109] 早田

108) 佐伯弘次, 위 논문 221쪽.

氏의 활동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왜구는 14기 중반 규슈의 남북조 동란을 틈타 크게 창궐하였다. 그들의 주요 약탈 지역은 남 · 서해안이었다. 그들의 주요 약탈물은 미곡과 인신이었으며, 남 · 서해안은 세곡을 수송하는 조운로였으므로 손쉬운 약탈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된 병량미를 얻기 위해 왜구의 형태로 병력이 파견되었을 가능성의 측면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

하지만 1380년대를 전후하여 왜구들은 본격적으로 동해안 지역을 약탈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진포대첩 · 황산대첩 등에서 참패한 왜구들이 새로운 약탈루트를 찾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 동해안의 왜구는 기본적으로 쓰시마를 출발하여 동해안을 따라 영해부 축산도에 상륙하여 이곳을 교두보 내지는 근거지로 삼아 내륙으로 진출하였다. 『양촌집』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영해 · 축산 지역으로 상륙하여 고개를 넘어 충청 · 강원 · 경기 등 내륙지역까지 약탈하였다. 아마도 고려시기 정비된 역로를 따라 이동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또한 이 시기 왜구가 울릉도를 일시적인 근거지로 삼기도 하였는데, 당시 해류 상 일본에서 바로 울릉도로 건너갔다기 보다는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다가 울진이나 축산도 등지에서 울릉도로 건너간 것으로 추측된다.

동해안 지역에 왜구가 창궐하는 무렵에 화척(양수척) · 재인에 의한 가왜 행위가 보고된다. 이들이 활동하는 영역은 당시 왜구가 출몰하던 지역과 일치하고 있다. 이들 가왜는 왜구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였고 서로 교류했을 가능성 역시 있다. 하지만 이들을 왜구의 주력 혹은 구성원으로 보기는 힘들며, '경계적'인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생겨난 별개의 집단으로 보아

109) 이영, 「여말 – 선초 왜구(倭寇)의 배후 세력으로서의 쇼니씨(少貳氏)」,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5,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3.

야 할 것이다.

우왕 14년(1388) 이후 일시적으로 동해안의 왜구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가, 조선 태조 5년(1396) 갑자기 왜구들이 동해안을 공격하였다. 이 왜구는 10여 년 전 동해안에 나타난 왜구와 마찬가지로 영해 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안을 남북으로 오가며 약탈활동을 하였다. 그러다 조선군에 의해 진압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영해부에서 조선에 항복하였다. 그 우두머리는 羅可溫으로 불리는 자였다. 우여곡절 끝에 조선에 항복한 羅可溫은 이후 한동안 조선에 정착하여 수직왜인 林溫으로 살아가게 된다. 또한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는 佐衛門大郎이라는 이름의 통교자로서 활동하게 된다.

이 羅可溫은 바로 15세기 초 쓰시마의 실력자였던 早田佐衛門太郎이었다. 1396년 羅可溫의 왜구 활동 양상을 1380년대 동해안 왜구와 비교해보면, 동해안 지역의 왜구는 젊은 시절의 早田佐衛門太郎가 중심이 된 집단이었다고 생각된다. 그간 왜구의 우두머리로 지목되었으나 그 활동이 잘 드러나지 않던 早田의 왜구 활동이 14세기 후반 동해안의 왜구 양상을 통해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쓰시마 내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었던 早田 가문의 인물인 佐衛門太郎가 조선으로 건너간 이유, 그리고 그 이후 쓰시마 내의 세력 동향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의 여지가 남아 있다. 또한 남북조 내란의 상황에서 왜구로 활동한 早田氏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러한 의문들이 앞으로의 연구에서 밝혀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1. 원사료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경상도속찬지리지』

권근, 『양촌집』

송희경, 『일본행록』

이덕무, 『청장관전서』

한치윤 · 한진서, 『해동역사』

2. 자료집

영덕군청, 『영덕군지』 下, 2002.

上田正昭 外 監修, 『日本人名大辭典』, 講談社, 2001.

3. 논저

동북아역사재단 편, 『고대환동해교류사』 2부 발해와 일본, 동북아역사재단, 2010.

주강현, 『환동해문명사 – 잃어버린 문명의 회랑』, 돌베게, 2015.

李領, 『倭寇と日麗関係史』, 東京大学出版会, 1999.

田中健夫, 『中世海外交涉史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59.

佐伯弘次, 『조선전기 한일관계와 博多 · 對馬』, 경인문화사, 2010.

佐伯弘次 編, 『中世の対馬』, 勉誠出版, 2014..

3. 논문

김보한, 「중세 麗 · 日관계와 倭寇의 발생 원인」 『왜구 · 위사 문제와 한일관계』,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2005.

손승철, 「고려시대 강원지역에 대한 왜구의 침탈과 대응」, 『강원사학』 24,

강원대학교사학회, 2011.
이 영, 「〈고려 말 · 조선 초 왜구=삼도(쓰시마 · 이키 · 마쓰우라) 지역 해민〉 설의 비판적 검토」, 『일본문화연구』 38, 동아시아일본학회, 2011.
_____, 「고려 말 왜구와 남조-경신년(1380)의 왜구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 31, 한일관계사학회, 2008.
_____, 「여말 – 선초 왜구(倭寇)의 배후 세력으로서의 쇼니씨(少貳氏)」,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5,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3.
이창섭, 「11세기 초 동여진 해적에 대한 고려의 대응」, 』『한국사학보』 30, 고려사학회, 2008.
이태훈, 「〈삼도왜구〉의 〈삼도〉에 대한 이영 說의 재검토」, 『한일관계사연구』 43, 한일관계사학회, 2012.
田村洋幸, 「対朝鮮貿易における早田一族の特質」, 『中世日朝貿易の研究』, 三和書房, 1967.
정병화, 「高麗末 慶北 東海岸 地方 倭寇 侵入時 民의 動向」,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정영현, 「여말선초 倭寇 被虜人의 쇄환과 그 성격」, 『지역과 역사』 39, 부경역사연구소, 2016.
정요근, 「11세기 동여진 해적의 실체와 그 침략 추이」, 『사학연구』 108, 한국사학회, 2012.
한문종, 「조선전기 對馬 早田氏의 對朝鮮通交」, 『한일관계사연구』 12, 한일관계사학회, 2000.
佐伯弘次, 「14~15세기 동아시아의 해역세계와 일한관계」, 『제2기 한일역사공동보고서』 3,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10.
樋口淳, 「老松堂のみた日本」, 『일본학연구』 11,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02.
蓑島栄紀, 「史料からみた靺鞨 · 渤海 · 女真と日本列島」, 『北方世界の交流と変容—中世の北東アジアと日本列島』, 山川出版社, 2006.

〈Abstract〉

Japanese Pirates on the Eastern Shore and the Soda Family of Tsushima

Jeong, Yeong-Hyeon

After its appearance on the Goryeo Dynasty in the fourteenth century, Waegu, Japanese Pirates, had started to pillage the eastern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along the eastern coast around 1380. This piracy could be concerned with their activities to find new place to sack after crushing defeats including the Battle of Jinpo and the Battle of Hwangsan.

In general, Japanese Pirates on the eastern shore had departed from Tsushima and moved inland establishing bridgeheads on Yeonghae-bu and Chuksando along the coast. After they had landed on the coastal area, they also plundered inland areas, such as Chungcheong, Gangwon, and Gyeonggi, crossing the mountains and, probably, using Postal Station Roads, organized during the Goryeo Dynasty. Contemporarily, the pirates also established a base for piracy on Ulleung Island for a while.

Around the time when Japanese Pirate raged on the eastern shore, Disguised Waegu (Japanese Pirates) came to the front as well. Interestingly, these disguised pirates were not belonged to Waegu, thereby being understood as an independent group organized separately from Waegu.

In 1396, Waegu had attacked the eastern coastal area of Joseon. They were forced to yield since Joseon's troops were about to overpower them. The boss of pirates was Nagaon.

Nagaon was Soda Saemontaro, an influential person in the Tsushima. Compared to that of Nagaon in 1396, piracy on the eastern shore in the 1380s would have been committed by a group, whose leader at that time was the young Soda Saemontaro. Soda's piracy has not yet been revealed, even though

he has been named as a leader of Waegu. However, it turns out that those being committed during the later fourteenth century were led by him.

* Key Words: Wako, Japanese Pirates, East Sea, Chuksando, Soda Family

• **논문투고일**: 2018년 4월 16일 • **심사완료일**: 2018년 5월 16일 • **게재결정일**: 2018년 5월 23일